



공공연대기금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작성일	2020년 9월 28일(16시)	작성부서	사업팀
책임자	김철운 집행위원장	담당자	강남규 과장(070-4272-0016)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청운동 113-3) 아카이브 빌딩 6층			www.solidarityfund.or.kr

코로나 19 경제위기 사각지대, 비영리영역 활동가 지원한다 비영리영역 고용유지·생활안정 위한 특별용자사업 첫발

-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영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로 사회적 공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영역이다.
- 오는 10월부터는 비영리영역에도 지원의 손길이 닿을 전망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29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코로나 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특별용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비영리영역 지원을 위한 특별용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특별용자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의 고용유지와 서울시 거주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3% 이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는 3년간 최대 2천만원, 활동가는 3년간 최대 5백만원 한도에서 용도에 맞게 대출받을 수 있다.
- 이 사업에는 서울특별시와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노사단위 기금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및 실행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맡는다.
-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비영리 활동가들이 정작 전

사회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라면서, “이번 특별용자사업이 비영리영역 지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